



Original Article

중국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박서아, 이지수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ffect of Chinese Nursing Students' University Adjust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Seo-A Park, Ji-Soo L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Ji-Soo Lee, jslee01@ikw.ac.kr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on depression among Chinese nursing students in Korea. **Methods:** Participants were 49 Chinese nursing students enrolled at K University in G city.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was used to measure the level of depression, the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 was used to assess acculturative stress,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was used to assess university adjust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 2023, to June 30, 2024, and analyzed us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version. 29.0. **Results:** The mean scores for Chinese nursing students were 69.75 ± 3.98 out of 180 for acculturative stress, 87.70 ± 2.10 out of 120 for university adjustment, and 10.67 ± 1.48 out of 60 for depressi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r=.55, p<.001$),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r=-.65, p<.001$), and between university adjustment and depression ($r=-.48, p<.001$). Acculturative stress ($t=4.53, p=.001$)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of depression of Chinese nursing students. Models that included the variables explained 30% of the variance for the level of dep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culturative stress had an impact on the depression of Chinese nursing students.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the acculturation of Chinese nursing students. Additionall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Keyword: International students, Acculturation, Stress, University adjustment, Depression

주요어: 유학생,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우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 간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학생 교류와 유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과 국내 대학의 해외 대학과의 교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유학생은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타문화 적응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신

중하게 결정해야 한다[3].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학업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활적응, 문화 적응 스트레스, 언어, 경제적인 문제, 학업 등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1,4]. 2010년 이미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81.5%가 아시아 지역 출신이며, 특히 중국 유학생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생활 중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4].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지 못한다면, 신체적 건강문제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야기 되고, 이는 유학 생활 중 학업유지와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5].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수행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직업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졸업 후 간호전문직 수행 활동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5]. 특히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와 교육체계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고, 문화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6] 한국에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중국인 간호유학생 역시 생활수준이 다르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유학 생활에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5,6].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인간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7]. 유학생은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어 인간의 적응능력을 넘어서는 경우,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6]. 이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5,6].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정서적인 부분과 학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의 단순히 공부만이 아닌 새로운 문화 적응도 함께 더해지는 것이므로 유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건강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1,2,5].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언어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건강한 유학 생활을 위해 우울 증상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 예방 및 관리, 중재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둘째,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학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정도를 확인하고,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까지 G 지역 K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 국적의 간호유학생 49명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상기 기간 교육과정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 2) 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이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총 7문항으로 나이, 성별, 전공, 한국어 능력, 유학 준비기간, 거주지, 한국 친구 유무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일반적 특성 문항은 한국어 및 중국어에 모두 익숙한 석·박사 중국인 유학생 2인에 의해 번역과 역번역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독립적으로 번역을 시행하였다. 문항은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통해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정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구성한 설문 문항과 역번역된 설문 문항 사이의 의미의 차이는 본 저자와 간호학 교수 3인이 검토하였다.

2) 대학생활적응(Student Adaptation College Questionnaire: SACQ)

Baker와 Syrik [9]가 개발한 SACQ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Park [10]이 하위요인을 수정하여 재구성한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의 설문지 총 28개 문항을 Lee [11]가 다시 재구성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환경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 등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점수의 범위는 24점-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 외국인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어버전 뿐만 아니라 중국어 버전의 설문지도 사용하였다. Lee [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

Sandhu와 Asrabadi [7]가 개발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IS)를 Hwang [12]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3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 문화적 충격, 죄책감, 기타 등 7개 하위영역, 36항으로 개발되었으나 Hwang [12]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된 3문항을 제외한 총 3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점수의 범위는 33점-1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wang [1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우울

Cheung과 Bagley [13]이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n 등[14]이 수정, 보완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0-3점 척도, 20문항으로 우울 정서 7문항, 긍정적 정서 4문항, 대인관계 2문항, 신체적 증상 7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 문항인 4, 8, 12, 16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지난 1주일 동안의 기분으로 '1 일 이하' 0점에서 '5-7일 이상' 3점의 Likert 척도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점수에 따라 15점 이하를 정상군, 16-20점을 경미한 우울, 21점 이상을 심한 우울군으로 구분한다. Chon 등[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92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연구목적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후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통역자가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25분이었고, 설문 종료 후 소정의 답례품(볼펜)을 제공하였다. 중국인 간호유학생 총 49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탈락률 없이 최종 4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시작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와 개인 정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9.0 progra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연령은 평균 $22.2(\pm 1.2)$ 세이며 유학 준비기간은 1~6개월 미만 46.9%(23명)로 가장 많았으며, 12개월 이상 16.3%(8명),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2%(6명), 준비기간 없는 경우가 24.5%(12명)로 나타났다. 유학 전 한국방문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방문한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98%(48명)로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방문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2%(1명)로 나타났다. 유학 전 사용 언어는 중국어가 95.9%(47명) 대부분으로, 영어를 함께 사용한 대상자는 4.1%(2명)였으며, 현재 거주하는 곳은 기숙사 75.5%(37명), 자취 22.4%(11명), 친척집 거주 2%(1명)로 나타났다. 중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대상자가 79.6%(39명), 한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동거하는 대상자가 14.3%(7명), 혼자 사는 대상자가 6.1%(3명)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 유무로는 대상자의 57.1%(28명)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명이 32.7%(16명), 3~5명이 6.1%(3명), 5~10명이 4.1%(2명)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어려움은 언어소통 75.5%(37명), 경제적 어려움 14.3%(7명), 학습능력 부족 4.1%(2명), 사회적 적응 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점수는 180점 만점에 평균 69.75 ± 3.98 점이었고, 대학생활적응은 120점 만점에 평균 87.70 ± 2.10 점, 우울 점수는 60점 만점에 평균 10.67 ± 1.48 점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Nursing Students (N=49) (continued)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 (year)			22.20 ± 1.20
Sex	Male	18(36.7)	
	Female	31(63.3)	
Preparation period for studying abroad (month)	1~<6	23(46.9)	
	6~<12	6(12.2)	
	12≤	8(16.3)	
	None	12(24.5)	
Previous visit to Korea	Yes	1(2.0)	
	No	48(98.0)	
Languages used before studying abroad	Chinese	47(95.9)	
	Chinese & English	2(4.1)	
Current residence	Dormitory	37(75.5)	
	Relatives' house	1(2.0)	
	Boarding house	11(22.4)	
Roommate presence/Nationality	Yes, Chinese	39(79.6)	
	Yes, Korean	7(14.3)	
	Alone	3(6.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Nursing Students (N=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Korean friend	1~2	16(32.7)	
	3~5	3(6.1)	
	5~10	2(4.1)	
	None	28(57.1)	
Hardest things	Language communication	37(75.5)	
	Economic	7(14.3)	
	Social adaptation	1(2.0)	
	Learning ability	2(4.1)	
	Other	2(4.1)	
Acculturative stress			69.75 ± 3.98
University adjustment			87.70 ± 2.10
Depression			10.67 ± 1.4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우울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of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p)
Age (year)		22.20 ± 1.20	
Sex	Male	12.22 ± 2.80	0.79 (.434)
	Female	9.77 ± 1.71	
Preparation period for studying abroad (month)	1 ≤ <6	10.43 ± 2.20	1.01 (.397)
	6 ≤ <12	14.83 ± 4.37	
	12 ≤	13.62 ± 4.82	
	None	7.08 ± 2.04	
Previous visit to Korea	Yes	12.00 ± 0.01	1.52 (.899)
	No	10.64 ± 1.52	
Language used before study	Chinese	11.06 ± 1.52	1.63 (.207)
	Chinese & English	1.50 ± 1.50	
Current residence	Dormitory	10.21 ± 1.79	2.24 (.117)
	Relatives' house	10.27 ± 2.06	
	Boarding house	32.01 ± 0.00	
Roommate presence/Nationality	Yes, Chinese	10.20 ± 1.68	0.42 (.657)
	Yes, Korean	14.00 ± 3.53	
	Alone	9.01 ± 8.02	
Korean friend	1~2	6.00 ± 2.61	1.19 (.136)
	3~5	16.33 ± 3.84	
	5~10	17.00 ± 14.00	
	None	12.28 ± 1.81	
Hardest things	Language communication	9.35 ± 1.54	0.73 (.574)
	Economic	16.00 ± 5.96	
	Social adaptation	9.00 ± 0.00	
	learning ability	16.00 ± 10.00	
	Other	12.00 ± 0.01	

3.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r=.55,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r=-.65, p<.001$), 대학생활적응과 우울($r=-.48,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Acculturative Stress, University Adjustment and Depression (N=49)

Variables	Acculturative stress	University adjustment	Depression
	r(p)	r(p)	r(p)
Acculturative stress	1		
University adjustment	-.65(<.001)	1	
Depression	.55(<.001)	-.48(.001)	1

4.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 값(tolerance)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과 잔차값(Durbin Watson)을 산출하였다. 공차한계 값은 .80~.94로 0.1 이상이었고, VIF 값은 1.07~1.24로 10 미만으로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를 분석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1.49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beta=.56, p=.001$)였으며,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30.8%이었다($F=11.22,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on of Chinese Nursing Students (N=49)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2.54	13.74		0.91	<.001
Acculturative stress	0.21	0.05	.56	4.53	.001
University adjustment	-0.15	0.12	-.21	-1.26	.213
Adj R ² =.30, F=11.22,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점수는 CES-D 척도에 의거하여 60점 만점에 10점 이상은 정상에 속하고 20점 이상은 심한 우울군에 속한다[13]. 본 연구에서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점수는 10.67 ± 1.48 점 이었고 정상군에 속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한국대학생 우울 수준을 파악한 결과인 Xian Yao 등[8]의 연구 결과인 10.3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결과인 Lee [16]의 연구에서는 24.33점으로 심한 우울군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16]. Lee [1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변수로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아 우울수준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Lee [17]의 연구결과보다 낮았던 것이 우울수준이 낮았던 차이를 발생시킨 이유로 사료된다.

또한 중국인 간호유학생이 한국 유학 중 경험하는 언어문제, 적응 스트레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이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시기의 우울증은 성인 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6,13,15]. 이는 한국으로 유학온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의 우울 예방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의 접근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간호 유학생들만

의 우울 및 정서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에서의 해외 유학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인 간호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조사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Lee와 Park [18]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16], 이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의 문화적응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Yoo 등[2]의 연구에서 유학생의 문화적응 문제는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상관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지각된 차별성, 사회적 고립, 열등감, 향수병 등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2]. 이에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대상으로 교사, 종교지도자와 같은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처럼 멘토 프로그램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우울은 대학생활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학생활적응 점수가 높은 경우 우울이 낮게 나타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0.8%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과 상관성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2]. 즉,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감, 절망감 같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17,19,20]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 역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고, 변인들의 상관성을 토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우울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유의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Pan 등[21]이 홍콩과 호주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정적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학생생활을 마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울을 야기시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우울에 대한 중재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과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한국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활동한다면 인적 네트워크도 확대되어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의 인지적지지체계 강화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영향요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파악되었다. 이에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파악하는 후속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을 학부, 교환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편의표집하여, 각 각의 표본 수가 적어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간호학과로 유학 오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유학생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외적 지지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중국 간호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돕는 교과 외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적응을 위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 간호유학생을 대상으로 우울 수준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간호유학생 우울예방 및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인 간호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와 대학과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인 간호유학생들에 대한 간호학계의 관심 및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Funding

None.

Authors contribution

All authors made contributions to this study by designing the study implementing the study and acquiring data analysing and interpreting the data and drafting the manuscript. All authors provided critical review of the manuscript and read and approved the final version.

References

1. Jeong HS.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ed on acculturative stress, academic stress and career stres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7):63-72. <https://doi.org/10.5392/JKCA.2016.16.07.063>
2. Yoo MR, Choi SY, Kim YM, Han SJ, Yang NY, Kim HK, et al. Acculturative stress, resilience,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3):320-329.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20>
3. Kim MS, Seok OB, Park KR, Seo YS. Moderating effects of maladaptive and adaptive perfectionism on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ve symptoms, and somatization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0;29(4):725-745.
4. Yin Q, Ryu TK, Moon SH.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24;31(5):229-248. <https://doi.org/10.21509/KJYS.2024.05.31.5.229>
5. Kim HJ.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cculturation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isure activitie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4;24(5):439-454. <https://doi.org/10.5392/JKCA.2024.24.05.439>
6. Lee AR, Lee HK.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career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in Korean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20;31(1):96-106. <https://doi.org/10.12799/jkachn.2020.31.1.96>
7. Sandhu DS, Asrabadi BR.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1994;75(1):435-448.
8. Xianyao D, Lee YW, Kim CY. A study on the recovery of sub-syndromatic depression in Chinese students. *The Journal of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2021;24(10):1425-1434.
9. Baker RW, Syri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984;31:179-189.
10. Park SY. The affection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masters thesis]. [Seoul]: Sookmyung University; 2003. 74p.
11. Lee YS.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ending on their acculturation type.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2015. 79p.
12. Hwang JI.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adjustment stres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masters thesis]. [Iksan]: Wonkwang University; 2009. 78p.
13. Cheung CK, Bagley C. Validating an American scale in Hong Kong: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The Journal of Psychology*. 1998;132(2):169-186. <https://doi.org/10.1080/00223989809599157>
14. Chon KK, Choi SC, Yang BC.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ealth*. 2001;6(1):59-76.
15. Liu JL, Ren F, Fang YH. The model fit of CES-D in Chinese adult sample. *Advances in Psychology*. 2018;8(12):1829-1837. <https://doi.org/10.12677/ap.2018.812213>
16. Lee YS. Acculturation stress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depending on their acculturation type. [masters thesis]. [Seoul]: Konkuk University; 2015. 79p.

17. Lee HJ.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the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language skills,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012;7(3):129-143.
18. Lee ON, Park GA. The moderating effect of bicultur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2019;12(1):1-19.
19. Wang CCD, Mallinckrodt B. Acculturation,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of Chinese/Taiwa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06;53(4):422-433. <https://doi.org/10.1037/0022-0167.53.4.422>
20. Park HW. Acculturative stress and mental health of Korean women living in UK.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0;10(8):308-316.
21. Pan J, Wong D, Joubert L, Chan C. Acculturative stressor and meaning of life as predictors of negative affect in acculturation: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betwee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and Hong Kong. *Australian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007;41(9):740-750.